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6.28(금) ~ 2024.7.4(목)

제공일시 2024 07 1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6.28(금) ~ 2024.7.4(목)

제공일시 2024 07 1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한다... “중국산 제품 통제 목적”

- 미국이 수입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함
-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처럼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품목을 겨냥한 일종의 관세 조치임
-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특사는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 높은 탄소 생산비를 반영하지 않은 저가 제품을 덤핑하는 시스템에 무임 승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산업 기반을 잠식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사실을 밝힘.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산 제품을 꼬집은 발언임

(한국경제 2024.7.3) 김리안 기자

### 2. 中 전기차 경쟁력 강화 나섰다... 베이징, 자율주행차 조례 발표

- 중국이 자율주행차 개발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전기차를 둘러싸고 서방과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통해 자국 전기차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짐
- 앞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중국 내 일부 도로에서 시범 주행할 수 있도록 비야디(BYD) 등 기업들에 면허를 발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도 베이징이 자율주행 규제 마련에 나섬
-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해 산업 사슬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아주경제 2024.7.1) 이지원 기자

### 3. 'EU와 전기차 갈등' 중국, 희토류 관리·감독 강화한다

- 미국·유럽연합(EU)과 전기차 등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이 전략 자원인 희토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희토류 관리 조례'를 공포함
- 30일 중국 국무원 누리집을 보면, 리창 총리는 전날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된 희토류 관리 조례에 서명함
- 희토류 자원의 국가 소유를 명확히 하고 생산·유통·수출 등에서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

(한겨레 2024.6.30) 최현준 기자

### 4. 일본, 항공연료 생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추진

- 일본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항공연료(SAF) 생산업체에 2030년부터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5% 이상 감축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함
- SAF 추진 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제안에 따르면, 2030년 4월부터 2035년 3월까지 SAF 생산업체는 제트 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2020년 수준 대비 5% 이상 줄여야 함. 이는 약 158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해당함
- 2035년 이후 감축 목표는 추후 논의될 예정

(글로벌이코노믹 2024.6.28) 김진영 기자

## 1. 해수부, 탄소배출 없는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 나선다

-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운 탈탄소화 선도와 국익 창출을 위한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을 마련해 2일 제29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함 [\(미디어펜 2024.7.2\) 구태경 기자](#)
-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크게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녹색해운항로 확대 및 연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기반 조성 △국제해운 탈탄소화 지원 강화로 구분됨
-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대응과 함께 우리나라 해운·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글로벌 녹색해운항로를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힘

## 2. 차세대 원자력 핵심인력 양성에 200억 투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서울대에 ‘차세대 고온 원자력시스템 융·복합 인력양성 센터’를 열고, 차세대 원자로를 포함한 미래 원자력 시스템 시장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함 [\(파이낸셜뉴스 2024.7.2\) 김만기 기자](#)
- 내년 2개 센터를 추가해 총 3곳의 인력양성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함
- 이 센터는 주관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 출연 또는 기업 연구기관에서 진행 중인 미래 원자력 시스템 설계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함

## 3. 환경부, 베트남과 기후대응 협력 강화… 배출권거래 협력방안 논의

- 환경부는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와 1일 제16차 한-베 환경부 장관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뉴스1 2024.7.1\) 황덕현 기자](#)
- 16차 회의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당 꾸옥 칸 베트남 정부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이 참석, 지난 6월 출범한 ‘한-베트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제감축 사업 등의 양국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함
- 환경부는 베트남 하티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으로 연계해 베트남 내 녹색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베트남 측에 협조를 요청함

## 4.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시스템 안착 기대/ 금융업도 내년부터 재무공시 강화… “밸류업·기업 투명성 효과”

- 1일 금융권에 따르면, 3일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함 [\(아시아타임즈 2024.7.1\) 정종진 기자](#)  
[\(이데일리 2024.7.1\) 최훈길 기자](#)
- 책무구조도는 최고경영자(CE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C-레벨’의 최고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하는 것이 핵심임
- 한편, 내년부터 금융업 상장사의 재무공시가 강화될 예정임. 재무공시 강화로 상장사 투명성 및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밸류업 효과가 나타나고, 주주 친화적 시장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 금융감독당국은 재무공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상장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 5. “경제안보품목 300여개 관리… 공급망기금 5조, 선도사업자 지원”

- 정부가 우리 경제·민생과 직결된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을 300여개로 늘림. 제조업·방산·민생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정됨 [\(머니투데이 2024.6.27\) 유재희 기자](#)
- 또,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를 지정해 관련 사업에 5조원 규모 공급망기금을 지원함. 특정 국 의존도 등 중요도가 높아 1등급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선 재정·세제지원을 집중함
- 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함

## 1. 셸, 유럽 최대 바이오연료 공장 건설 중단... 친환경 전략 '흔들'

- 셸(Shell)이 유럽 최대 규모의 바이오연료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함. 셸은 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건설 중이던 대규모 바이오연료 공장의 공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힘
- 이 공장은 폐기물을 친환경 항공유와 바이오디젤로 전환하는 시설로 2021년부터 공사가 진행돼 옴
- 셸 측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향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설명함

(포춘코리아 2024.7.3) 문상덕 기자

## 2. 중국 BYD 태국 전기차 공장 완공, 연간 15만 대 생산해 동남아와 유럽 수출/ “中 BYD, 올해 전기차 판매 테슬라 추월 전망”

- 중국 BYD가 태국에 동남아시아 지역 첫 번째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 생산에 나섬
- 3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BYD는 태국 수도 방콕 동남쪽에 위치한 라용주에 4억8600만달러(약 6500억원)를 투자한 공장을 4일 가동함. 해당 공장은 연간 전기차 15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 한편, 2일(현지시간)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중국 BEV 판매량이 북미의 4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또, BYD의 BEV 시장 점유율이 올해 급증함에 따라 BEV 판매에서 테슬라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됨

(비즈니스포스트 2024.7.3) 이근호 기자

(지디넷코리아 2024.7.3) 류은주 기자

## 3. 구글·블랙록, 대만에 1기가와트 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 투자

- 구글은 블랙록과 인공지능(AI) 열풍 속에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기지로 부상하는 대만에 1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힘
- 생성형 AI 등 AI 애플리케이션의 폭발적인 증가 등과 청정 에너지 가속화에 따른 구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지역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임
- 구글은 이번 계약으로 대만 태양광 개발업체 뉴그린파워에 자본투자를 할 계획이지만, 아직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함

(뉴스로드 2024.7.2) 강동준 기자

## 4. 바스프, ‘프라가티’ 프로젝트 통해 바이오 인증 폴리우레탄 출시

-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가 세계 최초로 지속 가능한 피마자 생산 프로젝트 ‘프라가티(Pragati)’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 인증 폴리우레탄 솔루션을 출시한다고 밝힘
- 바스프의 바이오 기반 솔루션은 화석 원료의 소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피마자유로 바이오 인증 폴리우레탄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임

(에너지플랫폼뉴스 2024.7.2) 정성필 기자

## 5. 美 아마존, 새 탄소크레딧 인증 기준 제시... ICVCM 있는데 왜?

- 아마존이 베라와 손잡고 새로운 자발적 탄소시장의 인증 프레임워크인 ‘아바쿠스(Abacus)’를 개발했다고 발표함
- 인증 프레임워크는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크레딧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됨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의 탄소중립 책임자인 제임스 멀리건이 인터뷰에서 “아마존은 ICVCM의 활동을 평가하고 지원해왔지만 더 야심 찬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밝힘
-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시장에 등장시킴으로써 기준이 난립해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로이터는 전함

(인팩트는 2024.7.2) 송준호 기자

## 1. 현대차그룹, 인니에 배터리-전기차 생산체제 구축… 정의선 “새 길 개척”/ 현대차, 스웨덴 현지법인 공식 출범… 유럽 전기차 시장 ‘가능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LG에너지솔루션과 인도네시아에 배터리셀 합작공장 ‘HI그린파워’를 준공함. 이곳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셀은 인도네시아공장에서 양산되는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에 탑재됨
- 배터리셀에서부터 완성차로 이어지는 일괄 생산체제를 구축하면서 아세안 전기차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게 됨
- 한편, 세계 전기차 시장 바로미터인 북유럽 3국 중 하나인 스웨덴에서 현대자동차 현지법인이 공식 출범함
- 스웨덴은 현대차의 유럽 전기차 시장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전초 기지이며 향후 유럽 전기차 시장의 가능자로 평가됨

(이투데이 2024.7.3) 강문정 기자  
(더구루 2024.7.3) 윤진웅 기자

## 2. LG엔솔, 협력사 LCA 수행 의무화… EU 배터리 규제 선제대응/ LG에너지솔루션, 튀르키예 재생 에너지 시장 ‘정조준’… 현지 공급망 구축

- 2030년까지 공급망 내 1차 협력사의 전력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인 LG에너지솔루션이 협력사 LCA(전과정 환경 영향 평가) 수행을 의무화함
- 3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탄소 중립 전략 가속화를 위해 올해부터 협력사의 LCA 수행 결과를 보고받고 있음. 올 2월 본격 시행에 돌입한 EU의 배터리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임
- 또, LG에너지솔루션이 튀르키예 태양광 스타트업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유통망 구축을 위해 손잡음
- 현지 기업들과 잇따라 파트너십을 추진해 성장성이 높은 튀르키예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가속화함

(이데일리 2024.7.3) 김성진 기자  
(더구루 2024.7.3) 정예린 기자

## 3. 삼성 반도체도 ‘리밸런싱’… 차량용 칩 개발 속도조절

-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감. AI 칩 중심으로 사업 역량을 재정비한다는 전략에 따른 조치임
-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조만간 선택과 집중을 뼈대로 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 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칩 설계 사업을 담당하는 시스템LSI 사업부는 최근 AI 칩 개발을 위한 사업 및 조직 개편을 진행함

(서울경제 2024.7.3) 강해령, 허진 기자

## 4. SK E&S, 텍사스주에서 ESS 상업가동 나선다

- SK E&S가 올해 하반기 미국 텍사스주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상업 가동에 나섬
- 3일 재계에 따르면, SK E&S는 최근 텍사스주에서 200MW급 ESS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에 돌입함. 설치 지역은 덴턴카운티와 그라임스카운티임
- 운영사는 SK E&S의 자회사 KCE임. KCE는 시운전을 통해 ESS 안정성을 검증한 후 하반기 상업 가동을 시작할 예정임

(매일경제 2024.7.3) 정승환 기자

## 5. 에코프로비엠, 헝가리공장 1.2조 대출… “유럽사업 박차”

- 전기차 캐즘(Chasm)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차전지 소재기업 에코프로비엠이 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함
- 1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을 통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자금을 확보함
- 이 자금은 첫 해외 사업장인 헝가리 데브레첸 양극재 공장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임

(뉴스스 2024.7.1) 박지현 기자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6.28(금) ~ 2024.7.4(목)

제공일시 2024 07 1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일본, CCS 9개 사업 지원... 말레이시아 3개 포함

(임팩트는 2024.7.2) 유인영 기자

- 28일(현지시각) 일본 경제산업성과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탄소 포집(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9개 사업을 2024년도 '선진적 CCS 사업'으로 선정했음
- '선진적 CCS 사업'이란 일본 정부가 2030년 CCS 사업 개시를 목표로 하는 모델 사업사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했음. 일본 정부는 이 지원사업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분리·회수·수송·저장까지 CCS 밸류체인 전체를 일괄적으로 지원해 CCS 사업 환경을 정비하고 있음
- 특히, 올해는 CCS 비용과 지하 저장에 관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CCS 밸류체인 전체의 설계 작업과 저장 가능성 평가 작업을 실시할 예정임
- 23년도 1차 선정 당시에는 7개 사업이 선정됐으나, 올해는 말레이시아 지역의 2개 사업이 추가돼 총 9개 사업이 선정됐음. 발전, 석유 정제, 철강, 화학, 종이·펄프, 시멘트 등 다양한 산업이 모여 있는 홋카이도, 도호쿠, 니가타, 규슈, 수도권 산업 단지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응할 예정임
- 해외 사업 지역으로는 말레이시아와 오세아니아 등 해외 4개 지역이 선정됐음. '선진적 CCS 사업'에는 일본 산업 단지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파이프라인과 선박 등을 이용해 말레이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운송, 저장하는 인프라 구축도 포함됨
- 9개 사업이 모두 실현되면 2030년에 연간 20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는 일본 연간 배출량의 2%에 해당함.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600만~1200만톤의 저장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올해 새롭게 추가된 2개 사업은 말레이시아 말레이반도 북부, 말레이시아 사라왁 앞바다를 각각 저장지로 하는 2개 사업임. 총 9개 선정 사업 중 말레이시아에서만 3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임
- 말레이반도 북부의 사업은 미쓰비시 상사 등이, 사라왁 앞바다는 일본석유자원개발(JAPEX) 등이 맡음.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와 협력해 해외 CCS 밸류 체인 구축의 사업성을 검증할 예정임
-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성장과 탈탄소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CCS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특히, 말레이시아는 포집한 탄소를 저장할 장소가 필요한 국내외 기업을 위해 자국을 CCS 허브로 개발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한국-말레이시아 간 CCS 프로젝트인 '셰퍼드 CCS 프로젝트'를 통해 말레이시아와 CCS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 산업단지에 발생한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해 국내 허브에 집결한 뒤 말레이시아로 이송해 폐가스전 등에 저장하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CCS 사업임. 이 프로젝트에는 삼성E&A, 삼성중공업, 롯데케미칼, SK어스온, SK에너지, 한화,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나스, 에어리퀴드코리아, 셀 등이 참여하고 있음